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진짜로 근본을 믿으세요

25면에서 계속

붓장도 없고, 물 깊기도 없고 뚝을 것도 없고, 이 말 언어도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풍짜지가 그렇게 불다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아플 때에 만약에 수술을 한다 이럴 때 풍짜지하고 콩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풍은 좀 나와서 쉬어도 됩니다. 풍짜지 부스러진 것만 고치게끔 놔두고 말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응신(應身)으로서 다 될 수 있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픈 아님이 없고, 내 도량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내가 곁대길 벗어날 때가 되겠다.' 할 때는 딱 치기만 해도 그 풍짜지기는 그냥 탁 떨어져서 까진단 말입니다. 풍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나오구요. 이렇듯이 우리가 공부할 진짜 하려고 칼을 뽑으면 그 칼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세세생생에 살릴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런 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틀리다 하면은 한번 세상을 쫓 돌려보시고요. 죽고 사는 게 어떠한 일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유마경도 한번 보시고요. 이 한문을 완전히 또 모르면은 그냥 한문 글자만 풀이를 할 줄 알지 그 뒷면의 그걸 몰라서 과거를 못 봅니다. 허허.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 보러 한양을 가는데 어느 주막에서 이렇게 쉬다가 너무 더워서 바깥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느라고 앉았는데, 그 아내가 남의 집에 일해줘서 풍뎌 풍뎌 모은 거를 주머니에 담아서 준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도 과거를 못 보면은 참 큰일나겠거든요. 이거 어린 자식들은 모두 활벗고 그 노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냥 남의 집에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공부 시키느라고 그냥 그렇게 살다보니까 살기가 무척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과거를 못 보면 난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앉아 있으니까, 어느 초췌하게 입은 노인네 한 분이 척척 걸어오더니 '어이구, 다리 아파!' 그리고 쉬더랍니다. "자네는 어디를 가는 행각인가?" 그러니까 "지금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하니까, "자네 과거를 보러 가려면 이거를 보게." 그리고선 주머니에서 활뎌 활뎌 꺼내더니 아, 책을 한 권 주는데 퍼보니까 백지예요, 백지. 허허. 그거를, 이 책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과거를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백지 한 장을 주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백지를 보고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아하, 이 과거 보는 글자 뒷면에는 백 자가 꼭 필요하구나!' '백 백 자는 고개를 틀었고, 백을 그냥 둥글리면 둥글려졌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전체가 꼭 찰 수도 있고, 꼭 차서 중심을 (손가락을 세워 보시며) 들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곤 딱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 그 대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잘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딱 기억해둘 거는 요 선장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뿌립니다. '뿌리에서 하나 하나 잎새가 다 살고 있구나!' 잎새라는 건 내 몸속의 생명들을 말합니다. 잎새 하나하나도 거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림이 큰 덩어리는, 뿌리에 달린 덩어리는 바로 그 해아릴 수 없는 생명들을 살게 하는 주머니예요. 주머니에 바로 그네들의 시자도 됩니다. 그네들을 다스리는 시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시자예요. 속에 들어 있는 거와 이 거죽에 싸고 있는, 우리 이 몸뚱이 자체가 전부 그 중심을 다스리는 시자예요. 그 중심에 끼워져 있어서 수레와 같이 돌아가는 바로 이걸 '범륜바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 잊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뿌리에서 모든 거, 들이고 내는 것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고, 율게 하는 것도 아프게 하는 것도 일거수 일투족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고 무조건 거기에 놓고 들어가

야 해요. 그냥 '너 (가슴을 짚어 보시며) 알아서 해!' 이러지 마세요. 지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너 알아서 해!' 이러면은 그냥 평등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아픈 거라든가, 가난한 거라든가, 일이 벌어졌든가 그러면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 놓고, 안되는 거는 '너만 이 할 수 있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당신만이 할 수 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아빠만이 할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뿌리만이 할 수 있잖아.' '주인공만이 할 수 있잖아.' 별 이름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름은 다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그 하나에서 나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또 화두를 스님한테 받았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온 게 화두니까 화두를 받은 것도 감사히 받아서 거기 같이 한자리에 놔라 이겁니다. 그냥 놓고 자꾸 가라 이거예요. 생각 나면 거기 놔라 이거예요. 나 빼놓고 화두를 들고선 '이게 뭐고?' 그리고 아무리 굴러도 그건 백날이 가도 그거는 깨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부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점검을 해주고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점검을 잘하죠, 아주 때로는 정히 모를 때는 꿈이라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편소리 하지 마시고 들이고 내

는 거, 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아무리 속가에서 살림을 하고 살더라도 이 공부하는 거는 팽팽합니다. 또 돈이 있고 없고도 없고, 잘나고 못나고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더러 "병이나 고치는 게 부처님 도인 줄 아는 모양이지?" 이렇게 바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앞에 딱치는 대로, 그 고생을 하는 것도 딱치는 대로지 병이라고 어떻게, 부처님 법은 병을 고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내버리니까? 또 내가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관(觀)하시면 부처님 마음과 내마음이 통과, 통과가 된다는 얘기를 이끌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병이 나면 병이 나는 대로 자신이 대처를 하고, 가난해도 자신이 대처를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대처해, 할 줄 알아야 그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들의 조복을 받게 됩니다. 조복이라는 거 아시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시며) 이래요? 허허. (대중 웃음) 이 몸속에 있는 생명의 의식들이 내가 한생각을 하면 똑같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공부할 진짜로 하려고 칼을 뽑으면 일체 만물만생은 세세생생 건질 수 있는 그런 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음이 된다는 것을 조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마음으로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제라 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대로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입력된 거를 없애는 도리를 만날 일러 드렸죠? 거기다 놓게 되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진다, 이렇게요.

또 오신통이라는 자체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가고 오는 거, 아는 거, 내가 어머니 속에서 탄생을 한 거, 이런 거를 뒷면의 그 뜻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입력이 다 되니까 그게 숙명통(宿命通)으로부터, 그 모두 있는 데서, 누진(漏盡)으로부터 이게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누진으로 활짝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도 그 차원 낮은 인간으로 세세생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지 마시고,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자꾸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위 조상들도 아래 자녀들도, 내 몸속의 자생중생들도 자꾸 조복을 받게 되고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 말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거서부터 생활 속에서, 아니 내 몸으로부터, 내 몸 속에도 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 하나가 세계라고 해도 됩

니다. 그 세계, 내 몸 자체도 대처해 나가야겠고, 내 가정도 대처해야겠고, 사회도 대처해야겠고, 국가 민족을 또 대처해야겠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처해야겠고, 이게 모든 게 이 마음 하나로 인해서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양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거 하나면 됩니다. 불씨 하나면!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이게 깨달아서 굴릴 줄 알아야, 하나의 작대기가, 이게 작대기가 만약에 태양빛이라면, 태양이라면 그 해아릴 수 없는 바늘같이 이렇게 꿰졌죠, 빛이 말이예요. 바늘같이 퍼진 그 자체가 바로 중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예요. 왜냐하면은 이 뭐 우리 산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데나 다 지킴이 있어요. 바다는 해신(海神)인 주해신(主海神)이 있고, 산에는 주산신(主山神)이 계시고, 나무들은 지혜로운 주림신(主林神)이 있고 이 모두가 이름이 다 있듯이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양 손으로 차례로 더 큰 원을 그려 보시며)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싸고 있듯이 그거와 같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한생각이 아쪽이고, 아미타고,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칠성이고, 독성이고, 다 용신이고, 산신이고, 다 이게 한생각에서 나온 이름들이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한 분이 한 식구를 이끌어가면서 다 하시죠? "나는 이걸

지금 할 테니까 자네는 이거 이거 해." 하고선 그렇게 애들한테는 애들 할 일, 어른한테는 어른 할 일 이렇게 하듯이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지 않는 대로 무궁무진하죠. 한생각이 이 허공에 꼭 찰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질문 좀 하시든지요. 아시더라도 이성계가 저 무학 대사 찾아가는 길에서 딱장수 할머니를 봤을 때에 그러듯이 딱그릇에도 무조건 얻드러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라도 두들겨가면서 가시도록 하시면 남들이 또 배우죠.

질문자(남): 스님, 이번에 제가 죽지 못해가지고요, 많은 분들한테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도 그렇고 옆에서 일어난 문제도 보면은 제가 죽지 못했다는 거 그게 제일 걸리고요. 제 자신이 죽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그 상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몰락 맡겨놓지 못해가지고요. 맡겼다가도 다시 들고 또 맡겼다가 다시 들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괴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죽고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몽땅 자기가 생각하고 들이고 내는 거, 몸뚱이, 모두 보고 듣고 하는 거 등등 하여튼 일거수일투족 몸뚱이 하나가 뿌리에 다 달려있어요,

한 뿌리에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지 제 나무가 탄 나무 이름이나 형상에 이렇게 고달리면은, 제 뿌리는 언다가 놔두고 그러고 다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저를 끌고다니는 영원한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하고 거기다가 놓지 못하고, 바깥으로 그냥 당당당당 발을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이 돼야만이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맡겨놔야 이게 대보로 가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돼서 의식들이 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응신(應身)이 돼서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통신이 돼요? 왜 맡겼다가 도로 빼고 맡겼다가 도로 빼고 그래요?

모두들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고는 내게 와서는, 이제 좀 아프니까 다니다가 보면 좀 낫거든요. 그러면은 해이해져선 더이상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가 또 떴다 벌어지면은 그때서야 또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거든요. 허허. 그게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생활 속에서 그냥 자기가 공부하라는 건데 누가 돈을 싸다가 달라고 그러나, 누가 출창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나, 아니, 자기 생활 속에 그 생활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재료라고 그래도 그렇게들 모두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짜로 믿어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 아랑곳없이 말이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도 않고 정말 살지 않으면서도 죽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도 살고, 이렇게 되죠?

질문자(여): 저는 한마음선원에 나온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하려고 그러셔도 공부나, 뭐를 배워야 공부 가 되는 건지 그걸 모르구요, 또 참선을 어떻게 해야 참선이 되는 건지 그거를 몰라서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스님: 여가 스님네들한테 자주 와서 배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여):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자주 나오질 못해요.

스님: 그러니까요,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오시다 보면은 다리를 들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거 이따금씩 그쳐 예후! 좀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들어다보고 그냥 훌쩍 가고 그러니 될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리가 부러지든 성하든, 한번 내가 지극하게 그걸 배워보겠다 하고 자주 와지면요, 한 다리 이렇게 종종대 이렇게 올려놓지 못한 게 또 한 다리 올라가고 또 한 다리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위 법문은 1995년 5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 축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원장 지 광 / 사부대중 일동

봉축행사 일정

- 봉축대법회 5월 21일 (금) 오전 10시 30분
- 옥 불 식 대불광장 오전 9시
- 대법당 오후 1시
- 예 술 제 대법당 오후 3시
- 제 등 행 렬 능인선원 ⇄ 교보타워 오후 6시